

‘司馬之璽’ 印章 비교 분석

문 병 순
(경희대학교)

◆ 국문초록

최근 戰國時代 고문자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되면서 당시 문자에 대해 좀 더 정확한 판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성취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서적이 발간되었다. 이러한 서적들은 최근 고문자연구의 성과를 종합 정리한 것이며, 더 나아가 해당 문자를 국가별로 분류하여 학술적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문자의 판독 및 국가 분류에 있어 보완 및 수정의 여지가 있는 곳이 일부 보이고 있다. 이 논문은 『古璽彙編』 0024에 수록된 ‘司馬之璽’ 印章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楚나라 印章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齊나라 또는 燕나라 印章으로 분류하는 견해도 있다.

주제어 : 戰國時代, 古代印章文字, 司馬, 鑑定, 지역특색, 古璽彙編

I. 들어가는 말

중국에서 印章이 언제, 그리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것인가에 대해 역대로 많은 연구와 의견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출토 유물을 근거로 볼 때, 대략 春秋時代부터 관료기구 및 개인을 상징하는 ‘信用之物’(신용의 징표)로 사용되었다는 점에는 異見이 없

다. 戰國時代에 와서 印章은 왕공귀족부터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용품이 되었다. 따라서 중국에서 印章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우리가 새로운 고대유물을 접할 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문자의 정확한 판독이다. 문자에 대한 정확한 판독이 있는 후에야 비로소 시대의 구분과 지역 및 국가의 분류가 가능하다. 현재 학계에서 甲骨과 青銅器의 시대 및 국가(지역) 판별 능력은 이미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상대적으로 印章에 대한 판별 능력은 아직 체계적이지 못한 단계에 처해있다. 그 원인으로 印章은 甲骨과 青銅器 연구에 비해 소외되었던 연구대상으로 최근에 들어서야 학계의 중시를 받고 있다. 또한 印章에 기재되어있는 내용이 너무나 간략하고, 게다가 좁은 공간에 문자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자를 생략하고, 변형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고대 印章의 국가(지역) 분류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羅福頤가 편찬한 『古璽彙編』과 『古璽文編』은 현존하는 가장 권위적인 先秦印章印譜 및 印文 참고서로 평가받고 있다. 『古璽彙編』은 전문적으로 先秦印章만을 수집하였으며¹⁾, 印文에 근거해 官印과 私印(姓名, 複姓, 成語, 單字)으로 분류하였고, 모든 印文에 기본적인 문자 판독을 첨부하였다. 비록 印文의 판독과 용도의 분류에 있어서 일부 오류가 지적되고 있지만, 羅福頤의 선도적 연구결과는 중국 고문자 연구 및 印章文字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羅福頤가 『古璽彙編』을 편찬하면서 印章의 국가(지역) 분류는 시도한 바가 없어, 후대 학자들이 印文 판독의 오류를 지적함과 동시에, 印章의 국가(지역) 분류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 시도는 印章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며, 도출해낸 결과를 통해 우리는 좀 더 심도 있는 학술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印章 분류에 대해 학자들 간의 異見이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견해 차이는 각 종 古文字字典에 그대로 반영되어 사용자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국가(지역) 분류에 있어 아직 異見이 분분한 印章 중 ‘司馬之璽’(『古璽彙編』 0024) 印章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최근 새롭게 발표

1) 『古璽彙編』에는 秦漢시대 印章도 일부 수록되어 있다.

된 각 종 고문자 자료 및 당시의 국가별 문자 특징을 고려한 종합적 분석을 시도하고자한다.

II.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司馬之鈇’(『璽彙』0024)

본 印章은 『璽彙』 이외에도 『陳簠齋手拓古印集』, 『璽印集林』, 『中國篆刻全集』, 『中國璽印篆刻全集1·璽印(上)』 등 다양한 印譜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각 종 印譜에는 印影만 수록되어 있을 뿐 실물의 사진, 그리고 소장기관 또는 개인과 관련된 기록이 전무하여 아쉬움이 있다.

현재 본 印章의 印文을 ‘司馬之鈇(璽)’로 판독함에는 異見이 없다. 또한 鄭超, 黃錫全, 李守奎, 陳光田 등 고문자 전공 학자들이 楚나라 印章으로 분류한 이후²⁾, 이러한 견해는 학계의 定說로 받아들여져 각 종 고문자 字典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 후 施謝捷이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楚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 처음 제시하였지만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그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는 파악할 방법이 없다.³⁾

2) 鄭超, 「楚國官璽考述」, 『文物研究』總第2期. 黃錫全, 「古文字中所見楚官府官名輯證」, 『古文字論叢』, 臺北: 藝文印書館. 李守奎 『楚文字編』 541쪽. 陳光田, 『戰國璽印分域研究』 132쪽.

3) 논문의 제1장 제2절 ‘燕系官璽’에 ‘司馬之鈇(璽)’를 수록하였지만 齊나라 官印으로 표기하였다.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에 저자의 명확한 의도는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施謝捷, 『古璽彙考』, 安徽大學 博士學位論文, 2006, 72쪽.

Ⅲ. 印文의 종합적 비교 분석

1. 官名 비교

印文에 기록된 ‘司馬’는 春秋時代 모든 제후국과 戰國時代 모든 국가에 설치된 대표적인 武官이다. 官印의 경우 중앙 관직과 지방 관직의 구별은 지명 추가 여부로 구별될 수 있다. ‘地名+司馬’처럼 지명을 明記한 경우 地名을 근거로 국가를 분류할 수 있지만, 지명이 없는 중앙 관직은 오로지 官名の 특징, 즉 다른 나라에 없는 독특한 官名일 경우에만 가능하다.⁴⁾ 따라서 본 印章의 官名인 ‘司馬’만으로는 국가를 구별할 방법이 없다.

2. 文例 비교

戰國時代 官印중 ‘官名+之銖’와 ‘官名+銖’ 형식은 일반적으로 楚와 齊에서 사용하고, 기타 지역은 官名만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⁵⁾ 또한 지역에 따라서 자신만의 독특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戰國時代 국가별 官印에 보이는 文例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齊에서는 ‘鑿’이 官印에서 ‘銖’字와 동일한 위치에 사용되고 있어, 裘錫圭는 ‘節’의 의미로 사용되는 齊나라 특유의 字形으로 설명하고 있다.⁶⁾ 또한 齊나라 官印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찾아 볼 수 없는 ‘官名+信銖’의 형식도 종종 보이고 있다.

燕에서는 ‘銖’보다는 ‘節, 鉞, 伏, 伏鉞’의 독특한 自名방식을 취하고 있다. 간혹 ‘銖’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之銖’가 아닌 ‘~銖’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晉에서는 일반적으로 ‘~圻’형식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 ‘金’偏旁 대신 ‘土’偏旁을 사용하고 있어 쉽게 구별된다.

楚에서는 일반적으로 ‘官名+之銖’를 즐겨 사용하고 있다.

秦에서는 일반적으로 ‘銖’가 아닌 ‘印’을 사용하고 있다.

4) 예를 들어, ‘莫敖’와 ‘連敖’라는 官名은 오직 楚나라에만 보이고 있는 독특한 官名이다.





























5) 文炳淳, 『戰國時代 중국의 인장』 43쪽, 한국문화사, 2016년3월(출간예정).

6) 裘錫圭, 『戰國文字中的‘市’』, 『古文字論集』(北京: 中華書局, 1992), 466쪽, 注10.

이처럼 戰國時代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官印의 文例를 근거로 볼 때, ‘司馬之鈔’는 齊와 楚나라 印章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

3. 字形 비교⁷⁾

① ‘司’

























	齊		燕		晉	楚	秦
 0024	 3813	 0025	 0010	 0014	 0068	 0042	 秦印 176쪽
	 3819	 0027	 0011	 0015	 0072	 集粹809	
	 3825	 0019	 0012	 0016	 0073	 珍秦戰9	
	 3826	 0033	 0013	 0017	 0075	 4901	
					 3834	 港續131	

『璽彙』0024의 ‘司’는 ‘口’와 ‘丩’가 분리된 構形을 취하고 있어 ‘口’가 ‘丩’ 안쪽에 위치한 보편적 構形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丩’의 획이 일반적으로 직각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0024는 원만한 각도로 휘어져 있다. 이와 가장 유사한 획은 楚의 0042와 5538이다. 따라서 본 印章의 ‘司’는 楚나라 문자와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② ‘馬’

『璽彙』0024의 ‘馬’字는 글자의 하단에 생략기호 ‘≡’를 사용하여 몸통을 대체하였으며, 말갈기는 두 개의 선(≡)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우선 머리의 왼쪽 하단에서 오른쪽 상단을 관통 후, 다시 직각으로 꺾어 평행을 이루고 있다(ㄴ).

7) 표 안에서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古璽彙編』을 지칭함.

	齊		燕		晉		楚	秦
 0024								
	0064	3813	0050	0060	2757	3318	0042	
					3811		0268	
	0023	3819	0052	3770	3828	2231		
					4008	2943	5538	
0025	3826	0054	3820					
								
0026	5542	0058	3893					
		0059						
							秦印 190쪽	

우선 齊印에서는 ‘馬’ 字의 머리 부분이 「ㄷ」자 형태로 되어있으며 오직 齊나라 印章에만 보이는 독특한 현상이다. 秦印은 이미 隸化되어 오늘날의 한자와 큰 차이가 없다. 두 국가의 ‘馬’字는 0024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晉과 楚는 0024와 유사해 보이지만 말갈기 부분에서 미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말갈기를 상징하는 가로획(≡)이 머리 부분을 평행으로 관통하고 있어 우상향후 평행(∟)을 이루는 0024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晉나라에서는 글자 하단에 몸통 생략기호를 한 획(‘—’)만 사용하고 있다.

0024와 가장 유사한 구조는 燕나라로 볼 수 있겠다. 우선 말갈기 가로획이 머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上向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말갈기가 머리의 끝부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점은 공통점이다. 그러나 燕나라에서는 말갈기를 모두 삼 획(≡)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0024는 두 획(≡)을 사용하고 있어 미묘한 차이점이 보이고 있다.

③ ‘之’

『璽彙』 0024 ‘之’ 는 構形 측면에서 晉, 그리고 秦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齊, 燕, 楚와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없다. 특히 齊의 0199와 0220, 燕의 彙考91, 楚의 0205와는 더더욱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齊	燕	晉		楚	秦
0024	0007	0095 彙考91	0568	4246	0008	0136 0136 0203 0205 0210 秦印 112쪽
	0198		1873	4305	0100	
	0199		4821	4309	0128	
	0220		3212	4311	0129	
	1185		4244	4819	0131	
	5557		4833	4826	0132 0135	





④ ‘鈇(璽)’

	齊	燕	晉		楚	秦
0024	0007	1185	0341	3927	0100	0132
	0028	3681	0568	4605	0101	0168
	0330	5539	4252	4620	0128	0184
	0331	5256	0907	4622	0131	0212
	2709	5257	3340	4690	0136	5549
	0342	0322	0287	3345	0138	5559
						秦印 176쪽

戰國時代 ‘璽’字는 뜻 부분 ‘金’과 소리 부분 ‘尔(尔)’로 조합된 것이 가장 일반적인 構形이다. 뜻 부분에 ‘土’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보이고 있으며, ‘金’과 ‘土’ 두 개를 모두 추가한 構形도 간혹 보이고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璽’字는 秦나라에서 시작된 것이다.

晉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土’ 偏旁을 사용한 ‘坵’字를 사용하고 있으며⁸⁾, 간혹 ‘立’偏旁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構形은 다른 나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이다.

8) 『璽彙』 0356, 1885, 1906은 ‘金’偏旁을 사용하고 있지만 학계에서 齊印과 晉印 두 가지 학설이 제시되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楚나라의 ‘金’偏旁은 다른 나라와 유사한 일반적 構形을 사용하지만, , , ,  처럼 楚만의 독특한 構形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독특한 構形은 다른 국가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秦나라는 ‘印’ 또는 ‘璽’字를 사용하고 있다.⁹⁾

이상의 분석을 근거로 볼 때, 0024의 ‘鈇(璽)’는 쥘과 秦 두 나라와는 확연히 구별되지만, 齊와 燕과는 매우 유사하여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다만 소리 부분으로 사용된 ‘尔(尔)’의 構形에서 미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燕과 楚는 ‘尔(尔)’의 머리 부분이 일반적으로 ‘八’형태로 되어 있어 0024의 ‘尢’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장 유사한 字形은 齊나라 문자라고 할 수 있다.

4. 印面 비교

국가별 ‘司馬’ 官名이 기재된 印章의 印面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¹⁰⁾

※		『璽彙』 0024				
齊 :		『璽彙』 5542		『璽彙』 0023		『璽彙』 0025
燕 :		『璽彙』 0023		『璽彙』 0058		『璽彙』 0061
晉 :		『璽彙』 0057		『璽彙』 3828		『璽彙』 0045
楚 :		『璽彙』 5538		『璽彙』 0042		『璽彙』 0197

戰國時代 국가별 印面の 분할(界格과 邊欄), 印文의 종류(朱文과 白文),

9) 秦에서는 일반적으로 ‘印’字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璽’字의 경우 下部에 ‘玉’이 아닌 ‘土’偏旁을 사용하고 있다.

10) 원고 작성의 편의를 인해, 인용된 印面 사진은 원래사이즈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였음.

印面の章法 및 風格은 印文과 연계된 예술적인 부분으로 印章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이러한 특징은 戰國 시대 각 지역별 印章을 구별함에 있어 학술적 근거로 적극 활용될 수 있다. 戰國時代 국가별 印面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璽彙』 0024는 약 1.5cm×1.5cm 크기의 白文으로 제작되었으며 白文邊欄을 사용하고 있다. 필획은 기본적으로 굵고 무거운 느낌이며, 글자의 배치에 있어 上下는 좁지만, 좌우는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을 남겨두었다. 특히 ‘司’와 ‘之’ 두 글자사이는 인위적으로 虛와 實의 강렬한 대비를 만들고 있다.

齊나라 官印은 方形이 주를 이루고 있다. 印面은 대략 2.3cm~2.5cm 크기이며, 白文과 鼻紐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陶質의 官印도 소수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 長方形이며 銅質보다 큰 印面을 사용하였고 朱文으로 제작되었다.

燕나라 官印은 대부분 方形白文에 壇紐를 사용하고 있으며, 印面은 대략 2.1cm~2.4cm 크기이고, 邊欄은 있지만 界格은 없다. 일부 1.4cm~1.5cm의 작은 크기로 제작된 官印은 대부분 朱文을 사용하고 있으며, 印面이 6.7cm에 달하는 대형 官印도 보이고 있다. 또한 印面이 가로 1cm~1.2cm, 세로 5~8cm인 長條形朱文印은 오직 燕나라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독특한 형식이다. 대부분 朱文印은 邊欄이 없고, 白文印은 邊欄을 사용하고 있다.

三晉 官印은 비교적 통일된 격식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方形鼻紐 또는 方形壇紐이며, 圓形 또는 長方形은 소량만 보이고 있다. 印面の 크기는 대부분 1.5cm이며 朱文으로 제작되었고 白文은 극소수이다. 朱文으로 제작되었기에 인위적으로 만든 邊欄은 없으며 界格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白文官印은 모두 玉質을 사용하였으며 지위가 높은 관직에 사용되고 있다.

楚나라 印章은 官印과 姓名印 모두 다른 국가에 비해 자유분방한 형태로 제작되었기에 印面 역시 통일된 규격 없이 다양한 크기가 보이고 있다. 印面은 方形이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圓形과 長方形도 소량 보이고 있다. 白文에 邊欄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일부 印面에는 田字格을 사용하고 있다. 가장 돋보이는 특징은 印章의 제조법이다. 타 지역에서는 印章을 제작할 때 印文도 함께 鑄造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楚나라에서는 印章을

제작한 후, 나중에 印文을刻한 경우가 많이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銅質印章임에도 불구하고 玉質印章에서 풍기는 印文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¹¹⁾

이상과 같이 戰國時代 국가별 印面의 특징을 비교한 결과, 0024 印章과 가장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楚나라 印章이다.

IV. 비교 분석 결과

이상의 비교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官名 및 文例의 특징 비교 결과

印文에 기록된 ‘司馬’는 春秋時代 모든 제후국과 戰國時代 모든 국가에 설치된 대표적인 武官이다. 따라서 지명이 없는 중앙관직 ‘司馬’만으로는 특정 국가로 확정할 수 없다. ‘官名+之鈔’의 文例는 일반적으로 楚와 齊 印章에 자주 보이며, 다른 국가에서는 주로 官名만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字形의 특징 비교 결과

본 印章의 ‘司’字는 楚나라 문자와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馬’字의 말갈기를 의미하는 가로획 방향 및 표현 방식이 燕나라와 가장 유사하다. 다만 燕나라에서는 말갈기를 모두 삼 획(≡)으로 표현하고 있어 미묘한 차이점이 있다. ‘之’字는 戰國時代에 가장 많이 그리고 보편적으로 사용된 글자이기 국가별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鈔(璽)’字의 構形은 齊와 燕과 매우 흡사하지만 소리 부분으로 사용된 ‘尔(尔)’의 머리 부분이 ‘八’형태로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가장 유사한 字形은 齊나라 문자라고 할 수 있다.

③ 印面の 특징 비교 결과

印面の 분할, 印文의 종류, 章法 및 風格을 비교했을 때 楚나라 印章과

11) 文炳淳, 『戰國時代 중국의 인장』 제3장 국가별 印章의 특징, 한국문화사, 2016년3월 (출간예정).

가장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司’字에서 의도적인 ‘口’와 ‘丿’의 분리 構形, 그리고 ‘司’와 ‘之’ 두 글자사이의 인위적인 공간 배치 등은 楚나라의 일반적인 印章 형태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齊	燕	晉	楚	秦
官名	√	√	√	√	
文例	√			√	
字形	√	√		√	
印面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璽彙』 0024에는 秦나라를 제외한 齊, 燕, 그리고 楚나라의 특징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특정 국가의 印章으로 확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겠다. 첫째, 본 印章은 僞品일 가능성이 있다. 후대의 누군가가 戰國時代 印章의 전반적인 특징을 모방해 제작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다. 둘째, 戰國時代에는 국가별 인구가동이 빈번하였고, 전쟁으로 인한 국가 간 併呑이 빈번하였다. 이로 인해 타국에서 유입된 匠인이 印章을 제작하면서 해당 국가이외의 특징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 사용된 것이 아닌 殉葬 용도로 제작된 明器, 즉 冥印일 가능성이 있다. 漢代에는 印章을 순장품으로 사용했던 기록이 있다. 순장 용도로 제작된 印章은 주로 姓名印과 成語印 등 私印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官印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官印은 실제로 사용되었던 것이 아니며 죽은 자의 신분을 상징하기 위해 임시로 제작된 것이다.¹²⁾

향후 『璽彙』 0024의 실물이 발견되어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의혹 또는 가설에 대해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제공되길 기대한다.

12) 葉其峰, 『古璽印與古璽印鑑定』, 文物出版社, 1997, 8쪽.

❖ 참고 문헌

- 羅福頤, 『古璽彙編』, 文物出版社, 1981.
- 文炳淳, 『戰國時代 중국의 인장』, 한국문화사, 2016년3월.(출간예정)
- 施謝捷, 『古璽彙考』, 安徽大學 博士學位論文, 2006.
- 葉其峰, 『古璽印與古璽印鑑定』, 文物出版社, 1997.
- 李守奎, 『楚文字編』,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3.
- 陳光田, 『戰國璽印分域研究』, 岳麓書社, 2009.
- 鄭超, 「楚國官璽考述」, 『文物研究』總第2期.
- 黃錫全, 「古文字中所見楚官府官名輯證」, 『古文字論叢』, 1999.
- 裘錫圭, 「戰國文字中的‘市’」, 『古文字論集』, 北京: 1992.

❖ 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iMaZhiXi” Seal collected by
“GuXiHuiBian” 0024

Moon, Byung-Soon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significant interest and research on the Comprehensive Index of Character in the Warring States Period, which has resulted in many scholarly achievements. Hence,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categorize and summarize these achievements. Some researchers have already done a good job in this categorizing and summarizing. However, there is still work to be done in the comprehensive collation of the seal character research of the Warring States Period.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regionalize the “SiMaZhiXi” Seal collected by “GuXiHuiBian (古璽彙編)” 0024. The number 0024 seal is an ancient seal collected by “Guxihuibian” (古璽彙編). In general, this is a Chu seal from the Warring States Period. But some scholars think that the seal is actually from the Qi or Yan States.

Key Words

Warring States Period, characters on ancient Seals, sima, appraisal, regional features, “GuXiHuiBian(古璽彙編)”

논문접수일: 2015년 11월 10일

심사완료일: 2015년 12월 08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09일